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1. 3. 30(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성공적 통합신공항 건설… 연일 국토부 방문** - 장래 항공수요 1천만 시대에 걸맞는 공항으로 공항종합계획 반영 -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주체간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통합신공항 추진단	
② **경상북도, 아시아송페스티벌 2년 연속 유치 성공** -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 글로벌 온택트 뮤직페스티벌 성공, 높은 평가 - 9~10월 중 경주에서 45억 아시아인의 시선 집중, 화려한 개막 기대	관광마케팅과	
③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도정에 지역 전문가의 색깔을 담다** - 관주도 정책 개발, 이젠 옛말… 정책 수립심의조정까지 적극 참여 - 新성장동력 정책에 지역혁신 전문가 의견 반영	미래전략 기획단	
④ **주한 인도 대사 경상북도 방문… 다원화된 교류협력 논의** -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 일행, 이철우 도지사 예방	외교통상과	
⑤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 맞춤형 재활의료 서비스 기대** - 경산시 소재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 4층 규모, 150병상	장애인복지과	
⑥ **경북소방, 전국 최초 '화재조사 보고서 표준매뉴얼' 제작** - 화재조사 사례 중심 기술 보고서의 과학성 · 전문성 강화 기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⑦ **경북농업기술원, 전국 최초 사과 AI 재배 모델개발 착수** - 조사요원 채용해 사과농가 20호의 생육, 환경, 경영데이터 등 자료 수집	농업기술원 원예경영 연구과	
⑧ **경북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현장대응체계 점검** - 실무협의회 개최… 도·시군 공무원, 경찰청·시군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세상 지원과	
⑨ **경북도, 동해안 지진해일 대응체계 안전감찰 실시!!** - 예측 불가능한 지진해일,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 행정안전부 반부패조사팀과 협업으로 추진	안전정책과	
⑩ **평창올림픽 드림팀, 전국체전 개·폐회식 이끈다.** -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개·폐회식 특별고문 위촉 - 이도훈 홍익대 교수, 전국체전 연출감독 위촉	전국체전 기획단	
⑪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이 최선!!** - 유관기관 대응체계 유지,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사전예방대책 마련	친환경 농업과	
⑫ **단합과 소통의 장, 4-H경북연합회 연시총회 개최** - 도 임원 및 시군회장 40여 명 참석, 4-H 연간 활동 계획과 운영 방향 논의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작성자	단 장	최 혁 준		
			사무관	최병환	주무관	김원대
		연 락 처	054-880-8843			

경북도, 성공적 통합신공항 건설… 연일 국토부 방문

- 장래 항공수요 1천만 시대에 걸맞는 공항으로 공항종합계획 반영 -
-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주체간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의 재도약과 국가균형 발전 실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이철우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을, 23일에는 손명수 2차관을 직접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도로·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차원의 지원을 건의한데 이어, 30일에는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성공적인 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날 하대성 부지사는 주종완 공항정책관 등 국토교통부 공항관련 관계자를 만나 대구 경북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국가난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수용한 만큼, 정부의 역할과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등 장래 항공수요 1천만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 공항건설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화물터미널(26만톤) 설치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과,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군·민공항 이전과 공항신도시 건설간 연계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건의 했다.

현재, 국토부·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본계획 등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말에는 용역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서는 관련기관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관련사업의 추진은 물론 도로·철도 등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분야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대성 부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을 신속하게 가는 것으로, 충분한 규모의 공항이 제대로 지어지면 경북의 강·산·바다를 활용한 관광 수요와 인근 구미 산업단지의 IT, 북부지역의 바이오 백신제품, 품질 좋은 농수산 식품 유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시도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통합신공항을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16년 7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를 계기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군위 소보·의성 비안(15.3㎢)으로 이전지가 결정되었으며 군·민공항 건설 10조원 이상,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12조원 등이 투입되는 대역사로써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별첨>

※ 관련용역 현황

- **(대구시)「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0.11. 6. ~ 2021.11. 5.
  - 주요내용 : 군 공항 시설계획, 배치계획, 교통시설 개선 방안 등
- **(국토부)「대구공항 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 용역기간 : 2020.10.27. ~ 2021.10.22.
  - 주요내용 : 민항시설 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 **(경북도)「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0.12. 7. ~ 2021.10. 2.
  - 주요내용 : 공항신도시 마스터플랜, 교통수요 예측, 광역교통망 타당성 분석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자	과 장	송호준		
	팀 장	김복순	주무관	김기환
연락처	054-880-3196			

경상북도, 아시아송페스티벌 2년 연속 유치 성공

-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 글로벌 온택트 뮤직페스티벌 성공, 높은 평가 -

- 9~10월 중 경주에서 45억 아시아인의 시선 집중, 화려한 개막 기대 -

경상북도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서 '2021 아시아송페스티벌(Asia Song Festival)'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상북도는 K-POP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글로벌 음악축제를 2020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문화행사지원으로는 결고 적지 않은 약 5억 원의 국비지원도 함께 이끌어 냈다.

이번 공모에서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선정된 배경에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어 글로벌 온택트 방식으로 치러진 '2020 아시아송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아시아송 페스티벌은 2004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국가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K-POP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국비를 지원해 개최해 왔다. 특히 단순한 음악공연을 넘어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열린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K-POP페스티벌과 확실히 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송 페스티벌도 개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의 취소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글로

벌 공연은 개최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첨단 ICT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뮤직페스티벌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타워 특설무대에 열리는 공연을 유튜브와 네이버 V-라이브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550만 라이브 관람, 2,200만 누적 조회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이는 K-POP 공연역사에도 당당히 기록될 만한 획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주타워 메인무대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첨성대, 경주읍성, 대릉원 등 경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스타들이 공연을 펼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송 페스티벌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도 100% 부합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신라천년의 역사현장에서 공연이 펼쳐짐으로써 전통문화와 K-POP이 하나로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경상북도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대규모 관중이 집결하는 공연을 개최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일단 올 해도 현장 공연은 무관중으로 개최하고 2020년과 같이 전 세계에 연결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며, 다만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등 상황변화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중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라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과감한 방향전환과 창의적인 기획으로 2020년의 큰 성공을 거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며, “작년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공연과 신라 천년왕국의 수도 경주에서 경북이 중심이 되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미래전략기획단			
작성자	단 장	김 민 석		
	팀 장	김미화	담당자	김준식
연 락 처	054-880-4511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도정에 지역 전문가의 색깔을 담다

- 관주도 정책 개발, 이젠 옛말... 정책 수립·심의·조정까지 적극 참여 -

- 新성장동력 정책에 지역혁신 전문가 의견 반영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30일 도청에서 2021년 제1차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 위원들간의 네트워킹과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지역혁신지원단이 추진 중인 ‘경북형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에 이어, 2021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에 있어 경북과 타시도간의 기존 경제·산업벨트(클러스터) 제안사업 현황 재검토 및 유관산업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폭넓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혁신협의회는 각 분야 지역전문가로 올해 경북의 혁신과제와 신성장 먹거리 등 정책 발굴을 위해 계획수립, 심의, 조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정에 협력·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성장 둔화 대응, 한국형 뉴딜정책, 4차 산업혁명 등 대외 환경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형 초광역협력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균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벨트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도 8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김효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장은 “협의회가 관주도의 단순 심의·자문 역할에서 나아가 지역혁신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등 도정 참여도를 강화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의 여러 위기 요소들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혁신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방향 발견이 중요하며, 지역혁신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고 답했다.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2018년 출범 후 지난해 12월에 혁신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2기 위원을 구성했으며, 과학·산업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이루어진 분과협의회가 있다.

<사진별첨>

참고 **2021년 제1차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정기회의 개요**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위한

2021년 제1회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정기회의

❖ 연구중심의 혁신도정 추진을 위한 초광역협력사업 설명 및 의견청취
❖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정책 발굴 등 ‘21년 운영방안 논의

회의개요

○ 일　　시 : ‘21. 3. 30.(화) 10:00 ~ 12:00
○ 장　　소 : 화랑실(254호)
○ 참 석 자 : 23명(협의회 20, 지원단 2, 기타 1)
○ 주요내용
- 경북형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전략 및 연계사업 설명
- ‘21.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방안 등 현안 논의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9:50~10:00	10′	○ 등 록	
10:00~10:05	5′	○ 개회, 국민의례(약식)	
10:05~10:10	5′	○ 인사말	회장님
10:10~10:15	5′	○ 지역혁신협의회 추진 경과 보고	
10:15~10:50	35′	○ 초광역협력사업 발굴 용역 설명	
10:50~11:50	60′	○ 협의회 운영방안 등 현안논의	
11:50~12:00	10′	○ 마무리	
12:00~13:00	60′	○ 오찬(도시락)	지사님

경상북도	보도자료 【21.3.30(화)】	담당부서	외교통상과			
		작 성 자	과장	이 응 원		
			사무관	오태헌	주무관	최상남
		연 락 처	054-880-2716			

주한 인도 대사 경상북도 방문… 다원화된 교류협력 논의

-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 일행, 이철우 도지사 예방 -

- 철강산업, 기계공구, 제약부분, 스마트 팜 기술협력 논의 -

경상북도는 30일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 일행이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다원화하고, 한-인도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한 인도 대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경제교류를 비롯한 道-인도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대사는 경상북도의 강점인 철강산업, 기계공구, 제약부분에 대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인도의 제조업 시장의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술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공구 분야는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인력풀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하며, 제약부분은 코로나19 백신 제조 등을 포함하여 R&D 기술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도의 강점인 철강, 기계, 제약 뿐 아니라 스마트 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인도의 우수 인재를 한국에 파견하여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한 인도 대사는 “인도는 매년 4%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며, “경상북도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인도에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함께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인도는 1973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래 新남방 국가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경상북도와도 경제 교류를 통해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 뿐 아니라 경제·농업·관광·교육·새마을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별첨>

주한 인도 대사 道 방문 계획

Ⅰ 개 요

○ 일 시 : 2021. 3. 30(화) 11:00
○ 장 소 : 지사님 접견실
○ 방 문 자 : 15명 내외
- 인도대사관 : 주한인도대사부부 및 자녀, 2등서기관 외 3명
- 外 : 진덕수 한-인도협회장, 사무국장 외 1명
- 道 : 국제관계대사, 외교통상과장
○ 주요내용 : 道-인도 간 교류방안 논의, 하회마을(세계문화유산) 방문 등

Ⅱ 주요일정

날 짜	일 시	주요내용	비 고
3.30(화)	11:00~11:30	・도지사 환담	접견실
	12:20~13:40	・환영오찬	국제관계대사
	14:20~16:00	・하회마을 방문	탈춤 및 요가 참관
	16:15~16:50	・병산서원 방문	

Ⅲ 주한 인도 대사 프로필

○ 성 명 :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 생년월일 : 1970년생 (만 51세)
○ 학 력 : 델리대학교 역사학 석사
○ 주요약력
- 주미얀마 인도대사관 참사관
- 인도외무부 방글라데시 미얀마 담당 국장
※ 2018. 10월 주한 인도대사 부임



참고1 인도 개황

○ 일반개황
- 국명 : 인도(Republic of India)
- 수도 : 뉴델리(New Delhi)
- 인구 : 13억6천만명(세계2위)
- 면적 : 330만㎢(한반도의 15배)
- 종교 : 힌두교(79%), 이슬람교(14%)
- 언어 : 힌디어, 영어 등



○ 정치개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람 나트 코빈드('17. 7. 취임/제14대)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 245석/임기6년, 하원 545석/임기5년)

○ 경제개황
- 총 GDP: 3.2조불('19년, IMF)
- 1인당 GDP : 2,338불('19년, IMF)
- 경제성장률 : 4.2%('19/20년, IMF)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6.8%, 제조업 19.2%, 농업 14%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73. 12월 (現 신봉길 대사 부임, 2018. 1.~)
- 교역현황 : 207억불('19) 수출: 151억불, 수입 56억불
- 투자현황 : 對 인도 : 84억불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과 장	최 우 진		
			사무관	황 용 섭	주무관	박 종 운
		연 락 처	054-880-3762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 맞춤형 재활의료 서비스 기대

- 경산시 소재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 4층 규모, 150병상 -

경상북도는 30일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 도의원, 시의원,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경북권역재활병원(경산시 미래로 120) 개원식을 가졌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 온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공사비 486억원(국 135 도비 87.5억 시비 228.5, 복권기금 35)을 투입하여 부지 26,472㎡, 연면적 14,561㎡에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며, 개원초기에는 재활의학과 32개 병상을 시작으로 입원병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뇌졸중 및 뇌손상 재활, 척수손상재활,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스포츠재활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재활의학 분야 전문인력과 최첨단 로봇재활장비, 수영장규모의 수중치료실, 로봇보행실, 재활검진, 소아치료실, 중추신경계 치료실 등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최첨단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조 경상북도행정부지사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장애인은 물론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많은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고의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식 계획

행사개요

○ 일 시 : 2021. 3. 30.(화) 14:30 ~ ※ **개원식 : 15:00**

○ 장 소 : 경북권역 재활병원(미래로 120)

○ 초청인원 : 100여명(행정부지사, 복건복지부 정책실장, 기관단체장 등)

○ 행사내용 :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투어 등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경산시/경북대학교병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시간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식전	내빈환담	14:30~14:55	25 ′	주요내빈 영접 및 환담,	VIP 접견실
	내빈입장	14:55~15:00	5 ′	주요내빈 입장	
본행사	개 회	15:00~15:02	2 ′	행사안내 및 개회	사 회 이도현
	국민의례	15:02~15:04	2 ′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소개	15:04~15:09	5 ′	내빈소개(개별소개 및 영상자막)	
	경과보고	15:09~15:12	3 ′	추진경과 스크린영상	
	표창장 수여	15:12~15:17	5 ′	사회복지정책실장1, 부지사님2, 시장님2	
	기 념 사	15:17~15:20	3 ′	시장님	
	축 사	15:20~15:23	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5:23~15:26	3 ′	행정부지사님	
		15:26~15:29	3 ′	경산시의회 의장	
		15:29~15:32	3 ′	경북대학교병원장	
	테이프커팅	15:32~15:40	8 ′	테이프커팅 ⇒ 제막천 이탈	
식후	시설투어	15:40~16:00	20 ′	병원 주요시설 투어	
	폐 식	16:00~		기념품 배부 및 환송	

경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 **(사업기간)** ’15년 ~ ’19년(5년간)

○ **(위 치)** 경북 경산시 평산동 271-4 외 8필지

○ **(사업규모)** 지상 4층, 150병상(대지 8,007평, 연면적 4,404평)

○ **(사업예산)** 486억원(국 135 도비 87.5억 시비 228.5, 복권기금 35)

☞당초 270억, 추가 소요액 216억원, 토지 매입비 107억, 의료장비 구입비 55억포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자	과 장	조 유 현		
			소방령	전태호	소방위	남경우
		연락처	054-880-6251			

경북소방, 전국 최초 '화재조사 보고서 표준매뉴얼' 제작

- 화재조사 사례 중심 기술 보고서의 과학성 · 전문성 강화 기대 -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30일 소방본부 작전회의실에서 각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보고서 표준매뉴얼' 제작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 보고서란 화재현장을 감식·감정하여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보고서를 말한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도내 화재조사관들의 현장 경험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최근 5년간 화재조사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64건, ′17년 149건, ′18년 245건, ′19년 387건, ′20년 4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형사 소송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법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매뉴얼은 미국방화협회 화재조사 가이드 북인 「NFPA 921」 등을 참고하여 표준화된 서식·규격을 사용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 제시로 화재 원인 규명률 향상을 위한 기준과 보고서 양식의 통일성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2020~2021년 화재조사 보고서 품질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수상하는 등 화재조사 분야에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일선 화재조사관들에게 널리 활용돼 화재조사 보고서의 품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현장 감식능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첨단 조사 장비 사용법 교육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시켜 도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경북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작성자	과 장	김대현	
			팀 장	허창석	담당자	최돈우
		연락처	053-320-0359		

경북농업기술원, 전국 최초 사과 AI 재배 모델개발 착수

- 조사요원 채용해 사과농가 20호의 생육, 환경, 경영데이터 등 자료 수집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과의 생육, 환경, 경영데이터를 수집,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AI 재배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한 신품종 보급과 M.9 대목 확산은 사과농가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일소피해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토양, 생육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배지 변동을 예측하고, 기후변화 대응 적정 재배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AI 재배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농업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사과 주산지인 영주, 청송, 봉화 등 9개 지역 20호를 대상으로 전 생육기 동안 생육, 환경, 경영데이터를 수집한다.

생육데이터는 발아기, 개화기, 엽폭, 엽장, 신초길이, 수확기 등의 25개 항목을 환경데이터는 온도, 습도, 일사량, 풍향, 풍속, 강우량 등 8개 항목을, 경영데이터는 수량, 비료비, 농약비, 소득 등의 24항목을 수집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농업·통계·ICT 등 관련분야 전공자 15명을 채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를 축적하여 다양한 AI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구축은 AI 재배 모델개발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사과 디지털농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사진별첨>

참고 1 **사과 빅데이터 수집 농가 현황**

시군명	농가수	시군명	농가수
안동	2	청송	3
영주	3	영양	2
상주	2	예천	2
문경	2	봉화	2
의성	2	**합계**	**20**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		
		작 성 자	과 장	조현애	
			사무관	신재일	주무관	오수희
		연 락 처	054-880-4591		

경북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현장대응체계 점검

- 실무협의회 개최... 도·시군 공무원,
경찰청·시군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북도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군 즉각분리제도 대응 추진단으로 구성된 공무원과 시군 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3월 18일, 구미)을 시작으로 남부(22일 오전, 경주), 동부(22일 오후, 포항), 북부(23일, 안동) 등 순서로 유관기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역할을 정립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점검하였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 까지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며, 경북도에서는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체계 점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분리된 피해아동을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5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구미에 추가 설치, 40명 정원의 일시보호시설을 포항에 설치하여 단기보호 여력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일시가정위탁,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 보호사업을 통해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즉각분리 아동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소 전 대기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속한 검사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분리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정확한 아동학대 판정, 통합적 의료지원을 위해 포항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구미차병원, 안동의료원, 울진의료원 등 도내 전담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학대아동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도단위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한다.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경주소재)을 심리치료센터로 지정,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경상북도는 대응인력의 신속배치와 보호여력 확보 등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보다는 아동학대를 미리 막는 도민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전 년 무	
			팀 장	박임상	주무관	이치화
		연 락 처	054-880-2372		

경북도, 동해안 지진해일 대응체계 안전감찰 실시!

- 예측 불가능한 지진해일,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

- 행정안전부 반부패조사팀과 협업으로 추진 -

경상북도는 예측 불가능한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동해안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월 31일부터 5월 7일까지 도내 동해안 5개 시·군(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지진해일 조기경보 체계 ▷주민 대피계획 수립 ▷대피장소 관리 ▷대피훈련 및 홍보 실태 등이 있으며, 특히 이번 감찰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 반부패조사팀과 협업으로 추진한다.

도 안전감찰팀에서는 원활한 안전감찰을 위해 지난 3월 4일 행정안전부 및 지진해일 관련 전문가를 경북도에 초청하여 법령·지침 및 감찰요령 설명 등 사전컨설팅을 받았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협업감찰을 계기로 동해안 지진해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 구성 배경

○ **(대통령 보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을 **보고**('18.4.18.)

○ **(생활적폐로 지정)**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20)'에서는 범정부적 이행 필요성을 인정받아, **9대 생활적폐*** 근절 업무의 하나로 **지정**

* 공공기관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치원·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 추진 경과

○ **(제1차 협의회-'18.10.30)**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가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실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공식 출범**

○ **(제2차 협의회-'19.04.17)** KTX탈선, 청년근로자 압착사고 등 공공분야의 잦은 사고를 감안, **공공기관(43개)**의 상임감사를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

○ **(제3차 협의회-'19.11.05)** 중점과제에 대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등 **협의회가 정례적 운영체계**로 자리 잡는 계기 마련

○ **(제4, 5차 협의회 '20.6.2., 10.30.)** 중점과제 추진상황 및 **협업감찰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실무지원), **중앙부처**(감사부서), **시도**(안전감찰), **공공기관** 참여(총 74개 기관)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			
		작 성 자	단 장	정 상 원		
			팀 장	정경희	주무관	한상호
		연 락 처	054-880-3286			

평창올림픽 드림팀, 전국체전 개·폐회식 이끈다.

-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 개·폐회식 특별고문 위촉 -
- 이도훈 홍익대 교수, 전국체전 연출감독 위촉 -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주역… 지식전수와 경험담 공유 -

경상북도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의 주역인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제작단장을 맡았던 이도훈 홍익대학교 교수를 연출총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3월 24일 전국체전 준비상황보고회 참석을 위해 구미시민운동장을 찾은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개·폐회식은 체전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올림픽의 노하우를 살려 성공적인 개·폐회식 연출과 체전 붐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LG상사 부회장을 지냈으며, 이도훈 교수는 ㈜제일기획 출신으로 ‘APEC KOREA 2005 정상만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폐막식’ 등 국제행사를 연출하였다.

특히 두 사람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제작단장으로서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을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판타지 쇼로 만들어 냄으로써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희범 대표와 이도훈 교수가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이끌어 줘서 감사하다”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되살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이 과학과 문화가 하나 되는 감동의 축제가 되도록 열정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별첨>

참 고 **체전 개·폐막식 특별고문 및 연출총감독 프로필**

특별고문



○ 성　　명 : 이 희 범

○ 출　　생 : 안동

○ 생년월일 : 1949. 03. 23.

○ 학　　력 : 서울대 사대부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卒

○ 주요경력

- 제12회 행정고시 합격(수석, 1972년)
- 前산업자원부 장관(2003 ~ 2006년)
- 前한국무역협회 회장(2006 ~ 2009년)
- 前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2010 ~ 2014년)
- **前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2016 ~ 2019년)**
- 現서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장(2019년 ~)
- **現경북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2020년 ~)**
- 現서울대총동창회 회장(2020년 ~)

연출 총감독



○ 성　　명 : 이 도 훈

○ 생년월일 : 1963. 2. 7.

○ 학　　력 : 대광고등학교,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卒, 동대학 박사

○ 주요경력

- 前㈜제일기획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마케팅 솔루션 본부장
- APEC KOREA 2005 정상만찬 문화공연 총괄기획(2005년)
- 제17대 대통령취임식 "함께가요, 국민성공시대" 기획총괄/연출감독(2008년)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폐막식 총연출 감독(2011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제작단장(2018년)**
- S-OIL 복합석유화학시설 준공 기념식(2019년)
- **現홍익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2021년 ~)**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백 승 모	
			팀 장	정기수	주무관 이기철
		연 락 처	054-880-3367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이 최선!

- 유관기관 대응체계 유지,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사전예방대책 마련 -

경상북도는 올해 봄(3~4월)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농업기술원, 시군과 함께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내역을 살펴보면 3년('18년 ~ '20년)간 지속 발생하여 상시화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개화기 과수 꽃눈 피해로 18,530ha에 달했다.

* 피해규모('20) : 농작물 18,887ha

- 과수 18,530ha(사과 13,483, 자두 2,136, 복숭아 1,779, 배 716 등), 전작(감자 등)

이에 도에서는 지난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비 16억 원으로 열풍 방상팬, 미세살수 장치 등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데이어,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322억 원이 늘어난 33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3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방침으로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정보 및 작물별 피해 예방기술 제공 등 농업인 지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며, 각 기관별 대응체계 유지 및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영상회의를 3. 24일 개최하였다.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를 예방하는 기술로는 과수의 경우 방상팬을 통한 송풍법, 물을 뿌려 열을 발생시키는 살수법, 왕겨 등을 태워 과원내 기온을 올리는 연소법 등이 있으며, 고추, 감자 등 노지작물은 부직포, 비닐을 활용해 보온을 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를 해야 한다. 백승모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저온피해가 상시화 되고 있으니,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작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도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봄철 저온피해 예방대책>

참고자료

봄철 저온피해 예방 대책

❑ 과 수

○ 기본대책

- 과수원 조성 시 늦서리 피해가 적은지역 선택
- 저온피해 지역에서는 개화기가 늦은 품종, 저온 요구성 큰 품종 심음
- 균형적 비료주기, 적정한 열매 달림 등 수세 안정화로 건전한 나무 관리

○ 송풍법

- 방상팬을 작동시켜 위쪽 따뜻한 공기를 차가운 아래쪽 공기와 섞어주어 냉기가 머물지 않도록 하는 방법
  - ◦ 방상팬 가동 온도 : 발아 직전 2℃ 전후, 개화기 이후 3℃ 정도 설정
  - ◦ 가동 정지 온도 : 설정온도 보다 2℃정도 높게 설정(일출 이후 온도 급변 방지)

○ 살수법

- 물을 뿌려주어 물이 얼음이 될 때 방출되는 잠열 이용
- 얼음으로 덮인 가지 표면은 0℃ 유지
  - ◦ 과원 온도가 1~2℃로 되면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일출 때까지 가동

※ 단점 : 물이 부족하여 중단되면 나무온도가 기온보다 낮아져 피해가 커질 수 있음. 해빙 시 얼음에 의해 가지가 부러질 수 있음

○ 사후관리

- 결실량 확보를 위해 늦게 피는 꽃에도 2~3회 인공수분을 실시
- 열매솎기는 열매 달림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하고, 마무리 열매솎기도 동녹발생과, 기형과 등 장해 확인 후 실시
- 잎에 피해가 심할 경우 열매 달리는 양을 줄여주고, 꽃이 떨어진 후 물에 탄 요소를 잎에 뿌려주어 잎의 활력 및 수세회복
- 포도나무 아래쪽에서 발생된 건전한 새 가지를 잘 생장시키고, 말라죽은 가지는 빨리 제거하여 새로운 눈이 발생되도록 유도, 눈 솎기 등 작업은 최대한 늦게 함

❑ 채 소

○ 육묘기 저온피해가 우려될 때는 최대한 보온 및 가온에 주의

○ 아주심기를 하는 시기(정식기)에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늦서리 지난 후에 심고, 저온 피해가 우려될 때는 터널설치, 막 덮기(비닐, 천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3. 30(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원 민 정		
	팀 장	이우경	주무관	김성현
연 락 처	053-320-0285			

단합과 소통의 장, 4-H경북연합회 연시총회 개최

- 도 임원 및 시군회장 40여 명 참석, 4-H 연간 활동 계획과 운영 방향 논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9일 농업인회관에서 경상북도4-H연합회 도 임원 및 시군회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필수 인원만 참석하여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올해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도 연합회 규약 변경 및 임·위원 개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도 임원 및 각 시군회장들은 토의를 통해 4-H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해 4-H의 단합과 조직연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경상북도4-H연합회 안세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품목분과 활성화, 과제활동 등 중요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연시총회를 통해 서로 협의하고 운영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H회원이 농업, 농촌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H는 지혜를 기르는 명석한 머리(Head), 공동체에 헌신하는 충성스런 마음(Heart), 솔선수범하는 부지런한 손(Hands), 신체와 정신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몸(Health)을 상징하는 지(智)·덕(德)·노(勞)·체(體)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학습 조직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울릉군 제외)에서 약 1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청년이 농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조명받고 있는 만큼 도내 대표적인 청년농업인 단체인 4-H의 활약이 기대되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4-H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별첨>